



과업완수(Finishing the Task, FTT)란?

UUPG 복음화 비전: 5,000UUPGs/UPGs, 1.8 억 명의 사람들

과업완수(Finishing the Task, FTT)란

과업완수 (FTT) 는 지상명령 성취에 동참하기로 한 교회들과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FTT의 주요 목적은 전임 사역자를 모집하여 전 세계 모든 종족 가운데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파송하는 것입니다.

FTT의 역사

2000년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가 열렸고 당시 선교단체지도자들이 모여
“세계복음화의 성취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열렸습니다.
그중 71번 테이블에는 CCC, YWAM, 위클리프, 예수영화, 미국남침례교단 선교부(IMB)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도종족 개척선교를 위해 조건 없는 협력과 전략적인 동역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테이블 71'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4회씩 만나 사역을 점검하고 미전도종족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FTT(Finishing The Task)” 이름으로 본격적인 선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했을 당시,
약 200개 이상의 미개척 종족이 있을 거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약 3천 5백 개의 종족들 가운데 7억 5천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기준, 3,126개의 종족이 415개의 선교 단체 및 교단들을 통해 개척되었습니다.

FTT 운동에서 개척 (Engagement) 되었는데의 기준:

1. 종족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전임 사역자가 있을 경우
2. 종족의 언어로 사역하는 일꾼이 있을 경우
3. 종족 가운데 지속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4. 종족 가운데 장기적인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는가?

1. 각 종족 가운데 땅밋기 기도를 한다
2. 하나님께서 '평안의 사람'(Person of Peace)를 보내주시도록 구하기
3.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여러 단체가 함께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5 가지 요소

1. 공통된 목표

FTT의 목표는 지상 대명령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2. 통일화된 측정 시스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사역 경과를 측정하는데,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모든 세계 교회들이 모든 종족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아니라면, 어느 종족 가운데 더 들어가야 하는가? 입니다.

3. 상호 보완적인 사역

각 단체가 모든 지역을 가장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잠재적 일꾼들이 있는 단체와 그 일꾼들을 자원으로 돕고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 사이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4.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FTT는 매년 컨퍼런스를 통해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최신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의 현황을 보고하며 아직도 일꾼이 필요한 곳들이 어디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중복을 피하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곳을 강조합니다.

5. 중추적인 지원본부



폴 에실먼은 국제대학생선교회(CCC) 부총재이다. 그는 예수 영화 프로젝트를 설립했으며 25년간 프로젝트 책임자로 섬겼다. 그는 잇사갈 이니셔티브 전총재이다. 잇사갈 이니셔티브는 목사들과 경제계 리더들을 위한 비전 정상 회담을 통해서 인식을 불러오는 주창 네트워크이다. FTT의 전 책임자이며 단체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아있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에게 전임 사역자를 보내도록 격려한다.

폴 에실먼